

국가어항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 실태 연구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National Fishing Port Public Design Guidelines

주 저 자 : 김한수 (Kim, Han Soo)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공공디자인전공 박사과정

교 신 저 자 : 장영호 (Jang, Young Ho)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공공디자인전공 교수
nagoyajang@hongik.ac.kr

<https://doi.org/10.46248/kids.2025.4.237>

접수일 2025. 11. 19. / 심사완료일 2025. 11. 27. / 게재확정일 2025. 12. 08. / 게재일 2025. 12. 30.

Abstract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operational status of the "National Fishing Port Public Design Guidelines," enacted in 2021. Focusing on the actual Fishing Village New Deal 300 project cases, this study identifies the current state of application and its limitations, thereby suggesting future directions for improving the public design management system. The analysis revealed that Sehwa Port, Gungri Port, and Sincheon Port demonstrated high levels of spatial quality in terms of harmony and functionality. In particular, examples that actively incorporated local materials, landscapes, and cultural elements showed higher harmony. Conversely, some ports scored lower in areas such as color and exterior materials, landscaping, and nightscapes, confirming that discrepancies persist between the color and material standards proposed in the current guidelines and the specific characteristics of each reg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national fishing port public design requires more than minimal physical maintenance; it also requires integrated management of regional identity and landscape. Furthermore, strengthening regionally tailored design standards, establishing a post-management system, and expanding expert participation are key tasks for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public design operations.

Keyword

National Fishing Ports(국가어항), Public Design(공공디자인), Design Guidelines(디자인가이드라인)

요약

본 연구는 2021년 제정된 「국가어항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운영현황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실제 어촌뉴딜300 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적용 실태와 한계를 도출하여 향후 공공디자인 운영체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분석 결과, 세화항·공리항·신천항은 조화성과 기능성 측면에서 높은 수준의 공간 품질을 보였으며, 특히 지역 고유의 재료·경관·문화요소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사례일수록 조화성이 우수하게 나타났다. 반면 일부 항만은 색채 및 외장 재료, 조경·야간경관 등에서 낮은 점수를 기록하여, 현행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색채·재료 기준과 지역 특성 간의 불일치가 여전히 잔존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국가어항 공공디자인이 최소한의 물리적 정비를 넘어 지역 정체성과 경관의 통합적 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하며, 향후 지역맞춤형 디자인 기준 강화, 사후관리 체계 확립, 전문가 참여 확대가 공공디자인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는 핵심 과제임을 보여준다.

목차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진흥법제의 이론적 배경

- 2-1. 공공디자인 개념
- 2-2. 농산어촌 및 항만공간 디자인 특성
- 2-3. 국가어항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개요

3. 공공디자인법의 구조적 진단

- 3-1. 사업사례 개요
- 3-2. 어촌뉴딜300사업 공공디자인 3대 요소별 정성평가
- 3-3. 디자인가이드라인 평가

4. 결론

참고문헌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국가어항¹⁾은 어촌지역 경제 기반이자 해양자원의 중심지로, 어업 생산기능과 더불어 지역교류 및 관광 기능을 수행하는 복합공간으로 발전해왔다. 과거의 개발 정책은 주로 어항 기능의 효율성과 방어·수산물 유통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최근 농산어촌의 인구 감소, 지역 쇠퇴, 관광 수요 확대 및 생활환경 향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단순한 항만시설을 넘어 지역문화와 생활환경을 아우르는 공공성 중심의 공간으로 재편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공공디자인은 물리적 시설 정비를 넘어 지역성, 경관, 주민 삶의 질까지 고려하는 종합적 계획도구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2021년 「국가어항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국가어항의 공간 품질 향상과 정체성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어항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라 하면, 주로 국가어항을 대상으로 한 공공디자인 기준을 뜻하며, 이에는 경관성, 기능성, 조화성 등을 고려한 설계 원칙과 적용 지침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가이드라인의 적용이 형식적 절차에 그치거나 지역 특성이 미흡하게 반영되는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어항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운영현황과 실태를 분석하고 개선점을 도출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공공디자인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실질적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대한민국 국가어항 중 ‘어촌뉴딜300사업’ 완료지를 대상으로 하며, 내용적 범위는 국가어항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현장 사례 등의 분석을 포함한다. 한편, 시간적 범위는 가이드라인 제정 이후인 2021년부터 최근까지로 설정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 분석, 정책문서 검토,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수행하였다. 문헌 분석은 공공디자인 이론 및 농산어촌 공간계획 관련 연구를 포함하였으며, 정책분석은 가이드라인 및 운영매뉴얼, 국가어항 개발계획 자료를, 사례분석은 2023~2025년 한국농어촌공사 ‘공공디자인 우수사례’ 선정심사에 출품된 작품 중 어촌지

1) 국가어항은 어항 중 이용범위가 전국적인 어항 또는 도서·벽지에 소재하여 어장 개발과 어선 대비에 사용되는 어항

역에 해당되는 사업 6건을 바탕으로 현장 적용 실태를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어항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내용과 현장 적용 실태를 평가 분석하여 향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방향성을 고찰한다.

2. 이론적 고찰

2-1. 공공디자인 개념

공공디자인은 공공영역의 환경과 시설,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디자인 활동으로서, 미적 가치뿐만 아니라 주민 안전, 접근성, 정체성, 지속가능성 등을 포함한다. 최근 공공디자인은 통합적 계획 도입이 강조되며, 단순 설계기준 제시에서 이용자 중심 환경 조성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특히 공공디자인은 지역 커뮤니티의 정서와 문화자산을 반영하는 사회적 과정으로 이해된다.

2-2. 농산어촌 및 항만공간 디자인 특성

농산어촌·어항 공간은 자연환경과 생활문화가 결합된 곳으로, 지역 생업 환경, 공동체 기반, 자연 경관이 주요 구성 요소이다. 항만공간은 기능적 안전성과 효율성이 필수 조건으로, 선박 이동, 어구 작업, 물류 활동이 이루어지는 산업 기능과 주민 생활공간, 관광공간이 공존하는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항만 공공디자인은 기능성과 심미성, 지역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하며, 전문적 계획과 주민 협의가 결합된 복합적 성격을 가진다.

2-3. 국가어항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개요

국가어항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 경관요소, 안내체계 등 49개 대상 항목에 대한 디자인 원칙과 적용 기준을 제시한다. 가이드라인은 계획·설계·시공·사후관리 단계별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색채·재료 기준, 통합사인체계 등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법적 강제성이 아닌 정책 권고 수준이며, 구체적 지역 맞춤형 기준 부족이 지적된다.

2-3-1. 가이드라인의 목적 및 적용 범위

2021년 12월 6일 해양수산부에서는 국가어항 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각종 개발 및 정비사업에 대해 공공디자인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국가어항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발표하였다. 이는 어항 시설이 단순히 어업 중심의 기능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레저·관광·경관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강화되므로 디자인 요소를 계획 단계부터 반영하도록 유도하는 취지에서 시행되는 것이다.

적용 대상은 국가어항이며, 시설별·공간별 유형을 49개 유형으로 세분화하고, 각 유형별로 배치, 형태, 색채 등 디자인 요소별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2-3-2. 가이드라인 구성 내용

가이드라인에서는 공공디자인을 위한 기본 원칙과 방향성을 [표 1]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 1] 가이드라인의 기본 원칙과 방향성

원칙	주요 내용
조화성	주변 경관, 지형, 수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이어야 함
가능성 및 안전성	어항의 본질적인 기능 (어업·어선 활동, 물류, 접안 등)과 이용자의 안전이 우선 고려되어야 함
접근성 및 편의성	보행자, 관광객, 어업 관계자 등이 이용하기 쉬운 동선, 시설 배치, 안내체계 등이 설계되어야 함

또한, 49개 유형으로 세분화된 공간 및 시설 유형별로 다음과 같은 디자인 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제시되어 있다.([표 2 참조])

[표 2] 공간·시설별 유형 및 디자인 요소 가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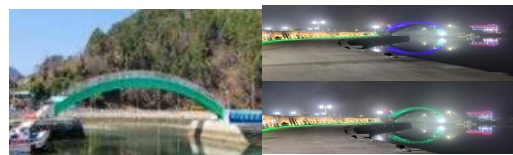
대상 공간 / 시설	고려 요소 / 가이드 항목
경계공간 / 어항 경관 관리구역	항만과 인접한 경계 공간의 조형, 조정, 시점 확보, 수변 프런트 경관 등
건축물 규모 및 형태	주변 맥락과의 비례, 높이 제한, 형태 단순화, 스카이라인 고려 등
배치 및 동선 설계	보행자 동선, 차량 동선, 접근 지점, 이용 흐름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 배치
색채 및 외장 재료	주변 경관 색채 톤과 조화를 이루는 색상, 부식·염분 대비 강한 재료 선택, 외장 마감 방식 등
조명 및 야간경관	야간에도 항구의 안전성과 경관을 확보할 수 있는 조명 계획(방향성 조명, 분위기 조명 등)
조경 및 녹지	수변 녹지, 완충 식재, 경계 조경, 심터 공간 등과의 연계성 고려
안내체계 및 시각표지	표지판, 안내판, 정보판 등의 디자인 일관성, 가독성, 배치 기준 등
안전 및 방범장치	난간, 펜스, 방조제, 구조물 안전 요소, 시야 확보 등

3. 어촌뉴딜300 사업 사례 분석

3-1. 사업사례 개요

3-1-1. 죽포항 어촌뉴딜300사업

전남 여수시 돌산읍 일원에서 추진된 죽포항 어촌뉴딜300사업(2019~2022)은 어촌 혁신성장을 위한 어촌·어항 재생을 목표로 하였다. 본 사업은 방파벽 및 어항구역의 경관개선을 중심으로 보행로, 타일벽화, 포토존, 페어망 보관창고, 어구·어망창고 등 생활기반시설을 정비하였으며, 마을 공공디자인을 통한 정주환경 개선과 특화 알림석 및 돌레길 전망데크 조성 등을 통해 지역 고유의 경관과 장소성을 강화하였다. 특히 방파벽 외부 디자인과 간접조명 설치는 죽포항을 어촌다운 명소로서 재해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그림 1, 표 3 참조])



디자인아치형 인도교 설치

경관조명 설치



골목길 경관 개선 및 버스 쉼터 설치

마을입구 경관조성

[그림 1] 죽포항 어촌뉴딜300사업 주요 내용

3-1-2. 구리항 어촌뉴딜300사업

구리항(2020~2023) 사업은 어촌·어항의 통합적 현대화를 지향하며, 지역 경관 및 자원을 활용한 복합 문화관광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었다. 철새를 모티브로 한 어울림센터는 지역 상징성을 강화하는 핵심 건축물로 기능하고, 해안 조망을 고려한 배치와 개방형 외부 공간 구성은 지역사회 활동을 활성화하는 기반이 되었다. 더불어 방파제를 활용한 놀거리 해상파크 조성은 수산업 기반시설과 관광 동선을 연계하여 차별화된 해양관광 명소를 창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그림 2, 표 3 참조])

3-1-3. 신창2리항 어촌뉴딜300사업

신창2리항(2019~2022)의 경우, 어항 인프라 확충과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였다. 본 사업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외부마감(징크, 리임스



어울림센터 주출입구 정면

오션뷰 실내 전망데크



연결교량 및 상징경관 설치

놀거리 해상파크 원형테이블
휴식공간

[그림 2] 공리항 어촌뉴딜300사업 주요 내용

튼) 적용을 통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적 경관을 구현하였다. 더불어 돌미역 유통센터는 작업 효율성과 외부공간 확보를 위해 2층 구조로 설계되었으며, 1층 제조·판매 기능과 2층 사무·지원 기능을 체계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지역 수산물 유통기능의 현대화를 달성하였다. 창바우 생활문화관 및 해양생태놀이터 등은 주민생활 및 관광활동을 아우르는 복합공간으로 조성되었다.(그림 3, 표 3 참조)



건축물 외부(정면)

1층 작업장



2층 카페

돌미역 유통센터 시공

[그림 3] 신창2리항 어촌뉴딜300사업 주요 내용

3-1-4. 세화항 어촌뉴딜300사업

세화항(2020~2024) 사업은 지역의 사회·경제·환경적 활력 증진을 위한 통합적 개발을 지향하였다. 세화섬비휴가센터 및 섬비마당 조성은 제주 전통주거공간 구조를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복합공간화를 구현하였으며, 파노라마형 조망 배치를 통해 해변경관과 연계된

장소적 랜드마크를 형성하였다. 또한 백색 모래, 돌담(검정·회색) 등 제주 고유 재료를 적용해 인접 건물과의 공간적 일체성을 확보하였으며, 어촌·어항 자원의 체계적 정비를 통해 세화항의 새로운 활력 거점을 구축하였다.(그림 4, 표 3 참조)



세화섬비휴가센터

푸드체험센터



다목적 회의 및 워크숍 공간

워크케이션공간

[그림 4] 죽포항 어촌뉴딜300사업 주요 내용

3-1-5. 신천항 어촌뉴딜300사업

신천항(2023~2024) 어촌뉴딜사업은 포구의 고유성을 보전하면서 문화·복지·관광 기능을 통합한 문화복합센터 조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건물 외관은 주변 색채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백색 벽체와 회색 지붕을 적용하였으며, 베란다 바닥에 제주 화산송이를 활용하는 등 지역성이 반영되었다. 또한 제주석을 활용한 볼텍싱터 조성, 광장 배치 등을 통해 지역주민과 방문객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여가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어항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였다.(그림 5, 표 3 참조)



신천항 문화복합센터 전경

수산물센터 전경



카페 전경

광장 및 포토존 전경

[그림 5] 신천항 어촌뉴딜300사업 주요 내용

[표 3] 어촌뉴딜300 사업 사례 분석틀

사업명	죽포항 어촌뉴딜300사업	굴리항 어촌뉴딜300사업	신창2리항 어촌뉴딜300사업
사업 개요	사업기간 2019~2022년(4년) 총사업비 8,931백만원 위치 전남 여주시 돌산읍 죽포리 죽포(두문포)항 일원	2020~2023년 14,534백만원 홍성군 서부면 굴리 일원	2019. 1. ~ 2022. 6. (3.5개년) 12,865백만원 포항시 남구 장기면 신창리 일원
배경 및 목적	어촌 혁신성장 견인을 위한 어촌-어항재생사업 추진. 지역만의 색깔을 지닌 어촌다운 명소지역으로서 정체성 강화	어촌시설 현대화 및 지역자원 활용한 어촌,어항 통합개발	어항 인프라 확충 및 어업인 삶의 질 향상
주요 사업 내용	방파벽-어항구역 경관개선, 죽포항보행로, 타임벽화, 포토존, 페어망보관창고, 어구어망창고 설치, 두문정 리모델링, 버스쉼터 정비, 마을공공디자인경주환경 개선, 아간조명 설치 등	어울림센터(다목적실, 전망데크, 동아리실 등), 놀거리 해상파크(수산물세척장, 조형물, 테이블, 탁자, 벤치 등), 바닷가마을 커뮤니티정원, 진입부 상징경관, 마을 안전시설 확충 등	창바우 생활문화관(문화교육실, 해녀의 방, 조리실 등), 돌미역 유통센터(가공실, 창고, 사무실, 다목적마당 등), 해양생태놀이터, 마을정자 등
디자인 적용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파벽 외부에 디자인 요소 도입으로 자연스럽게 특화된 경관조성(베이스의 건축물을 형상화 한 벽화 설치 및 입구쪽 디자인벤치 설치) - 어항구역 경관개선을 위해 지역 색채를 고려한 파티알 벽화 도입하거나 벽면 간접조명 설치함으로써 즉 포함 탐방의 경관요소로 활용 - 마을 정주환경 개선사업을 통으로 지역주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정비 - 마을을 상징하는 특화된 알림석 및 조망 구간을 활용하여 두문마을 둘레길에 벗어나 무 전망데크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울림센터는 철새를 모티브로 하여 경관적 특색 및 상징성을 부여 - 굴리항 해안을 바라볼 수 있도록 건축물을 배치하여 경관적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조성 -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외부공간에서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여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 - 천수만 놀거리 해상파크는 차별화된 어촌 관광명소 조성을 목표로 기존의 시설물을 관광객들의 접근이 용이한 방파제로 이동하여 방파제와 어선·여객 접안시설과 연계한 바다공원으로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특성과 지리적 환경과의 조화를 표현하며, 건축물 외부마감으로 정크, 라임스톤을 사용 - 외부공간 확보 및 작업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돌미역 유통센터를 2층으로 조성하고 1층에는 제조실을 중심으로 판매점과 완제품 창고로 구성, 2층에는 사무실과 탕비실 배치
사업명	세화항 어촌뉴딜300사업	신천항 어촌뉴딜300사업	장사항 어촌뉴딜300사업
사업 개요	사업기간 2020년 ~ 2024년(5개년) 총사업비 9,270백만원(국비 6,489백만원, 지방비 2,781)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일원	2023.07.~2024.06. 9,643백만원(5,958백만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을 신천서로 85-5	2020년~2023년(4년) 14,534백만원 (위수탁사업비: 9,900백만원)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장사항 일원
배경 및 목적	세화항과 어촌지역의 통합적 개발로 사회적·경제적·환경적 활력진전 및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	신천항 포구 특성을 살리고 주민의 문화 복지 및 관광객 편의 기반 마련	어업환경개선과 어촌소득 증대를 위한 지역 특화 어항재생사업
주요 사업 내용	세화습비후가센터(커뮤니티라운지, 탈의실 및 샤워실, 사무실, 회의실, 위케이션 등) 건축 및 세화습비마당(공용주차장, 야외교류마당) 조성	문화복합센터(수산물센터, 해녀갤러리, 해녀휴게실, 어린이책놀이터, 식당, 카페 등) 건축, 광장(돌담 정비, 포토존 설치, 쉼터 조성 등 조성	방사제 신설 및 방파제 옹벽 정비, 영랑호 쉼터 및 조망대 조성, 해변감성길 조성, 체험장 및 창고 설치, 소규모 계류시설 신설, 직판장 리모델링 및 소공원, 장사바다카페 조성
디자인 적용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전통주거공간 구조 개념을 적용하여 공간의 복합화, 역사문화스토리와 해변경관이 있는 장소 랜드마크 형성 - 주변 자연경관을 조망할 수 있도록 파노라마형 공간 배치 - 인접 건물(질그렁이거점센터 및 야외교류마당)과의 공간 일체화를 위해 세화해변의 모래(백색), 돌담(검정색&회색) 등의 재료를 선정 - 세화 어촌어항 자원의 체계적 정비 및 활용을 통해 세화 어촌어항의 활력력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공동체 마당 및 기능시설 복합화를 추진하여 세화항 어촌뉴딜 랜드마크를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 주변색과 조화를 고려하여 벽체는 white/지붕은 gray 계열의 색채를 사용 지역성(Regionality)을 유지 - 베란다 바닥에 화산송이(제주특산)를 포설하여 시각적 위화감을 줄이고 심미성(Aesthetic)을 고려 - 제주석을 이용하여 불턱 쉼터를 조성함으로써 방문자의 편의를 고려 - 신천항 문화복합센터 건물 앞에 광장을 배치하여 지역주민 및 관광객의 자유로운 여가활동이 가능하도록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남이를 볼 수 있는 조망장소에 쉼터를 조성, 영랑호 조망대는 울산바위를 조망, 수평형 단층형 조망대로 조성하여 호수면을 가까이서 보고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계획 - 장사바다쉼터 및 장사 소공원은 어구창고 옥상을 활용한 루프탑 쉼터를 조성하여 어민 및 관광객을 위한 쉼터 공간 조성 - 장사바다카페는 기존 회관 외벽 리모델링을 통해 장사항의 이미지 제고 및 경관 개선 - 장사항, 영랑호를 연결하는 산책로 조성 및 영랑호 조망대 등을 조성하여 관광객과 생태자원을 연계하여 관광객 유치를 중점으로 시설물 조성

3-1-6. 장사항 어촌뉴딜300사업

장사항(2020~2023) 사업은 어업환경 개선과 지역 특화를 통한 어항 재생을 목표로 하였다. 해넘이 조망쉼터, 영랑호 조망대, 해변감성길 조성 등을 통해 자연 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조망·휴식공간을 확보하였다. 특히 어구창고 옥상을 루프탑 쉼터로 재생한 장사바다쉼터, 기존 건물을 활용한 장사바다카페 리모델링 등은 공간 재생을 통해 지역 경관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또한 장사항과 영랑호를 연결하는 산책로 조성은 생태·관광 자원을 연계하여 관광 매력도를 제고하는 데 기여하였다.(그림 6, 표 3 참조)



영랑호 해넘이 쉼터 전경

영랑호 조망대



사바다카페 전경

다목적 체험장 조성

[그림 6] 장사항 어촌뉴딜300사업 주요 내용

3-1-7. 소결

여섯 개 어촌뉴딜300사업은 지역 경관과 문화자원을 기반으로 한 어촌 공간의 재해석, 주민 생활서비스 기능 확충, 관광·문화 복합공간 조성 등을 통해 각 지역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공통된 특징을 지닌다. 이러한 사례들은 어촌 지역의 물리적 환경 개선을 넘어, 지역사회 활성화와 경제적 잠재력 확장에 기여하는 통합적 어촌재생 모델로서 유의미한 함의를 제공한다.

3-2. 어촌뉴딜300사업 공공디자인 3대 요소별 정성평가

3-2-1. 정성평가 개요

공공디자인의 주요 평가 축인 조화성, 기능성 및 안전성, 접근성 및 편의성을 기준으로 여섯 개 어촌 공간 재생 사례를 체계적으로 검토한다. 조화성은 지역 고유 자연·경관·재료·색채와 시설·건축물의 조응 정도, 더

나아가 장소 정체성의 강화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였으며, 기능성 및 안전성은 공간의 실제 활용도와 어업·관광 등 지역 활동의 효율성, 그리고 항만 기반시설과 보행 환경의 안전성 확보 정도를 함께 고려하였다. 접근성 및 편의성은 주민과 관광객이 공간에 접근하는 용이성, 동선 구조의 가독성, 생활 편의시설의 접근 편리성 등을 핵심 요소로 분석하였다.(표 4 참조)

3-2-1. 죽포항 어촌뉴딜300사업

죽포항은 방파벽 디자인 요소와 타일벽화 등을 통해 지역 경관과 시각적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자연 해안선과 조응하는 벤치·부조형 벽화가 장소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하였다. 기능성과 안전성 측면에서는 어구창고 및 보행로 정비로 통해 어업인의 작업 동선을 개선하였고, 야간조명 설치를 통해 주민과 방문자의 안전을 확보하였다. 접근성 측면에서는 돌레길 전망데크와 버스쉼터의 정비가 탐방객 접근성을 높였으며, 포토존 및 보행공간 조성은 관광 동선의 편의성을 향상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3-2-2. 구리항 어촌뉴딜300사업

구리항은 천수만의 생태자원을 반영한 철새 모티브의 어울림센터를 통해 지역 상징성을 건축적으로 구현하였으며, 해상파크와 방파제 간의 경관적 연속성을 확보함으로써 조화성을 더욱 강화하였다. 기능성 및 안전성 측면에서는 수산업 세척장과 동아리실 등 복합 기능의 공간 배치로 이용 효율성이 높으며, 방파제 기반의 해상파크 조성은 안전한 체험 및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 또한 접근성 측면에서는 어린이놀이터와 주차장 등 개방형 외부 공간 확보를 통해 주민 이용성을 높였고, 관광객이 방파제까지 쉽게 도달할 수 있도록 동선을 명확히 정비한 점이 돋보인다.

3-2-3. 신창2리항 어촌뉴딜300사업

신창2리항의 조화성은 징크와 라임스톤 등 자연재료 기반의 마감 처리로 주변 환경과 시각적 통일성을 이루고, 돌미역 유통센터와 생활문화관이 지역의 수산업 정체성과 건축적 표현의 조화를 달성한다는 점에서 확인된다. 기능성과 안전성 측면에서는 제조·판매·사무 등이 층별로 구획된 유통센터 구조가 작업 효율을 높이며, 해양생태놀이터와 정자는 주민과 방문객이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외부 공간을 제공한다. 접근성 측면에서는 생활문화관과 유통센터 간의 동선 배치가 효율적이고, 마을 중심부와 시설 간 연계성이 높아 일상적 이용 편의성이 증진되었다.

3-2-4. 세화항 어촌뉴딜300사업

세화항은 여섯 사례 중 조화성이 가장 두드러지는 사례로, 제주 전통주거구조의 공간적 해석과 모래돌담 등 지역 재료의 활용을 통해 지역성을 매우 높은 수준에서 구현하고 있다. 파노라마형 공간 구성 역시 인접 해안경관과의 자연스러운 조화를 이루며 시각적·환경적 통일성을 더욱 강화한다. 기능성과 안전성 면에서도 위케이션 공간, 커뮤니티 라운지, 사위실 등 복합 기능의 구성으로 공간 활용도가 극대화되었으며, 세화습비마당의 개방형 구조는 공공 활동의 안전한 수용을 보장한다. 아울러 접근성 측면에서는 해변 조망이 가능한 동선 구조와 주차장·아외교류마당의 조성으로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접근 편의가 크게 향상되었다.

3-2-5. 신천항 어촌뉴딜300사업

신천항 문화복합센터는 백색 벽체와 회색 지붕을 중심으로 주변 경관과 무리 없이 조화를 이루고, 제주석을 활용한 볼텍 심터 등 지역 고유의 재료 활용이 장소성 구현에 기여한다. 기능성과 안전성 측면에서는 문

화전사·휴식·식음 기능이 복합적으로 제공되어 이용 다변성이 확보되며, 광장 및 심터가 보행 안전성과 공공 활동 지원 기능을 동시에 충족한다. 접근성 측면에서는 광장을 중심에 배치한 공간 구성으로 주민과 관광객의 접근성이 높아졌으며, 실내외를 연결하는 동선이 명확하게 계획되어 편의성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된다.

3-2-6. 장사항 어촌뉴딜300사업

장사항은 자연지형과 경관에 순응하는 설계 전략을 바탕으로 해님이 조망심터와 영랑호 전망대가 지역 경관과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룬다. 기존 어구창고와 회관을 리모델링하여 시각적 일체감을 유지한 점 또한 조화성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능성과 안전성 면에서는 방사제 신설과 방파제 정비로 항만 안전성이 대폭 강화되었고, 루프탑 심터·체험장·직판장 등의 기능 복합화가 공간 이용도를 높인다. 접근성 측면에서는 장사항과 영랑호를 연결하는 산책로가 관광 동선의 연속성 및 편리성을 향상시키며, 조망대와 소공원 배치는

[표 4] 어촌뉴딜300사업 공공디자인 3대 요소별 정성평가

구분	조화성	기능성·안전성	접근성·편의성
죽포항	- 방파벽·어항구역의 디자인 요소 및 타일벽화는 지역의 색채와 경관을 반영, 어촌 이미지와 조화를 이룸. - 죽포항의 자연 해안선과 부조형 벽화, 디자인벤치 등이 장소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획됨.	- 보행로 및 페어망·어구창고 정비는 어업인의 동선을 개선하여 기능성을 높임. - 야간조명 설치는 방문자와 주민의 안전성을 확보함.	- 돌레길 전망데크, 버스쉼터 정비 등은 탐방객 접근성 개선에 기여함. - 포토존 및 보행로는 관광 동선의 편의성을 강화함.
굴리항	- 철새 모티브의 어울림센터는 천수만의 생태자원과 건축 디자인을 일체화해 지역 상징성을 강화함. - 해상파크와 방파제가 경관적 연속성을 가지도록 조성됨.	- 수산업 세척장, 동아리실 등 복합기능을 갖춘 시설 배치로 이용 효율성이 높음. - 방파제 기반 위 해상파크 조성은 안전체험·휴식공간 구성에 기여함.	- 외부 열린 공간(어린이놀이터·주차장 등)은 지역 주민의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임. - 관광객이 방파제까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동선을 명확히 설계됨.
신창2리항	- 징크·라임스톤 등 자연재료 기반 마감은 주변 환경과의 시각적 통일성을 제공함. - 돌미역 유통센터와 생활문화관은 지역 수산업 정체성과 건축 형태의 조화를 추구함.	- 2층 구조의 유통센터는 제조·판매·사무 등 기능별 분리로 작업 효율성이 높음. - 해양생태놀이터 및 정자는 주민·방문객의 안전한 이용을 고려한 외부 공간으로 조성됨.	- 창바우 생활문화관과 유통센터 간 접근 동선이 효율적으로 배치됨. - 마을 중심 공간과 시설 간 연계가 원활하여 주민 생활 편의가 증대됨.
세화항	- 제주 전통주거구조 해석 및 모래돌담 등 지역 재료 사용으로 지역성 구현도가 매우 높음. - 파노라마형 공간 구성은 주변 해안경관과의 자연스러운 조화를 강화함.	- 위케이션, 커뮤니티 라운지, 사위실 등 복합 기능 배치로 이용 효율성 극대화. - 세화습비마당은 개방형 구조로 안전한 공공 활동이 가능하도록 조성됨.	- 해변 조망이 가능한 공간 구성으로 사용자 동선 인지성이 높음. - 주차장과 아외교류마당 조성은 주민·관광객 접근 편의를 지원함.
신천항	- 백색 벽체와 회색 지붕 등 주변색과 조화되는 컬러를 적용함. - 제주석을 활용한 볼텍 심터 등 지역 고유 재료를 사용함.	- 문화전사·휴식·식음 등 복합 기능 제공으로 이용 다변성을 확보함. - 광장 및 심터는 보행 안전성과 공공 활동 기능을 동시에 고려함.	- 광장 중심 배치는 주민 및 관광객 접근 편의 향상에 기여함. - 카페·식당 등 실내외 접근 동선이 명확하게 구성됨.
장사항	- 해님이 조망심터, 영랑호 전망대 등 자연지형과 경관에 최대한 순응하는 방식으로 설계됨. - 기존 건물(어구창고, 회관)을 리모델링하여 지역성과 시각적 일체감을 유지함.	- 방사제 신설 및 방파제 정비는 항만 안전성 확보에 크게 기여함. - 루프탑 심터, 체험장, 직판장 리모델링 등 기능 복합화가 이루어짐.	- 장사항~영랑호를 연결하는 산책로는 관광 동선의 연속성과 이용 편리성을 향상함. - 조망대 및 소공원 배치로 접근성 높은 휴식·체류 공간을 확보함.

누구나 접근하기 쉬운 휴식·체류 공간을 제공한다.

3-2-7. 소결

여섯 개 사례는 조화성 측면에서는 여섯 사례 모두 지역의 자연·경관·색채·재료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지역성과 장소성을 강화한 특징을 보인다. 특히 세화항과 궁리항은 생태·자연 자원을 건축 디자인에 직접 반영함으로써 가장 높은 조화성 구현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기능성 및 안전성 측면에서는 전반적으로 기능 복합화(문화·관광·어업), 작업 효율성 개선, 기반시설 안전 강화 등이 공통된 성과로 나타났다. 특히 신창2리항과 장사항은 어업 작업 기능성을, 궁리항과 신천항은 문화·관광 복합 기능성을 중점적으로 강화한 사례다. 접근성 및 편의성 측면에서는 보행·조망·체류를 고려한 동선 계획이 대부분의 사업에서 반영되었으며, 특히 장사항(산책로 연계), 세화항(파노라마 조망), 죽포항(둘레길·보행로)은 접근성 강화가 두드러진다. 관광객뿐 아니라 지역 주민의 생활 접근성 개선이 고려된 점이 공공디자인적 의미로 평가된다.

여섯 개 사례는 공공디자인의 핵심 요소인 조화성—기능성·안전성—접근성·편의성을 다양한 방식으로 구현하며 지역 고유의 공간적·문화적 맥락을 강화하였다.

특히 여촌뉴딜사업은 단순 인프라 개선을 넘어서, 지역의 정체성 강화와 주민·방문자 중심의 공공공간 창출이라는 공공디자인의 목적을 실천한 대표적 정책 사례로 해석될 수 있다.

3-3. 디자인가이드라인 평가

3-3-1. 공공디자인 3대 요소별 평가

여섯 개 사례의 조화성, 기능성·안전성, 접근성·편의성에 대한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죽포항(여수)은 전반적으로 균형 잡힌 점수를 보이며 조화성과 기능성이 안정적으로 평가된 반면, 궁리항(홍성)은 세 지표 모두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하여 전반적 만족도가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신창2리항(포항)은 기능성·안전성 부문에서 돋보이는 평가를 받았으나 조화성과 접근성에서는 다소 보통 수준을 나타냈으며, 세화항(제주)은 조화성과 접근성에서 매우 높은 점수를 받아 전체 평가에서 가장 우수한 항만으로 평가되었다. 더불어 신천항(제주) 역시 모든 항목에서 고른 우수성을 보이며 높은 종합점수를 기록하였고, 장사항(속초)은 기능성과 접근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종합적으로 우수한 항만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할 때, 세

[표 4] 여촌뉴딜300사업 공공디자인 3대 요소별 평가(10점 만점)

구분	조화성	기능성·안전성	접근성·편의성	총 점 (평균)
죽포항(여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벽화·조명·벤치 등 디자인 요소 활용 우수 - 지역 경관과의 조화도 높으나 상징 구조물 비중은 크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고, 보행로, 야간조명 등 실사용 기반시설 강화 - 작업동선 개선은 중간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둘레길·포토존·보행환경 개선 효과 높음 - 관광 동선 체계화는 일부 제한적 	8.17
궁리항(홍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새 모티브, 해안 조망 중심 배치 등 지역 생태와의 조화가 매우 높음 - 랜드마크 건축물(어울림센터)의 상징성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문화·휴식 기능의 복합화가 잘 이루어짐 - 방파제 기반 해상파크의 안전성 확보가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방형 야외공간 및 주민활동 공간 구성 우수 - 관광객 접근성도 양호 	8.67
신창2리항(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징크·라임스톤 등 자연재료 조화도 높음 - 산업 기능 중심이라 경관 연출은 상대적으로 보수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층 유통센터 구조의 작업 효율성 매우 높음 - 생활문화관 생태놀이터 등 복합 기능성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능공간 간 연결성 높지만 관광 동선은 상대적으로 약함 	8.33
세화항(제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전통주거구조(돌담·백모래 등) 적극 적용 - 경관·재료·배치 모두 지역성과의 통합도가 매우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웨케이션·사위살·라운지 등 고도화된 복합기능 확보 - 야외공간 안전성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노라마 조망, 주차장, 열린 마당 등 접근성 뛰어남 - 관광객·주민 편의성을 모두 충족 	9.00
신천항(제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산송이, 제주석, 백색·회색 조화 등 지역성 반영 매우 강함 - 불턱 십터 등 전통 이미지 현대적 재해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전시·식음 등 복합 프로그램이 잘 결합 - 광장을 중심으로 안전한 공공 활동 공간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장 중심 배치로 접근성 우수 - 관광객 편의시설(카페·식당 등) 명확한 구성 	8.67
장사항(속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망대·감성길 등 자연경관 존중형 디자인 우수 - 리모델링 방식 활용으로 지역 이미지 보존 수준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사제·방파제 정비 등 안전성 확보가 매우 우수 - 루프탑 십터·직판장·체험장 등 기능 다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사항·영랑호 연결 산책로로 접근성 최고 수준 - 관광객 체류 동선의 편의성 뛰어남 	8.83

화향이 전체 평가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경쟁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며, 다른 항목들 역시 각기 강점을 지닌 것으로 분석된다.(표 4 참조)

3-3-2. 공간시설별 유형 및 디자인 요소 평가

여섯 개 사례의 세부 항목별 공간시설별 유형 및 디자인 요소 평가는 5명의 전문가가 각각의 항목에 대하여 10점 만점으로 평가한 결과이다.(표 5 참조)

결과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먼저 죽포항은 안내체계 및 시각표지, 조경 항목에서 비교적 양호한 점수를 보였으나, 건축물 규모 및 형태, 색채 및 외장 재료 등 기본 경관 요소의 평점이 낮아 전체적으로 개선의 여지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비해 공리항은 거의 모든 항목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기록하며 경계공간 관리, 건축물 형태, 배치 설계 등에서 우수한 경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신창2리항은 조경, 안내체계, 안전 관련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보여 기능적·경관적 관리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건축물 규모 및 형태와 배치 설계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평가를 받았다. 세화항은 대부분의 항목에서 우수한 점수를 기록하며 조화롭고 안정적인 경관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경계공간 관리와 색채·외장 재료 등 시각적 요소에서 강점을 보였다.

더불어 신천항은 경계공간과 색채계획 등 시각적 경관 요소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아 전반적으로 정돈된 항만 경관을 갖춘 것으로 분석되며, 안전 및 동선 측면에서도 준수한 점수를 확보하였다. 마지막으로 장사항은 조경 및 안전 항목에서 강점을 드러내며 기능적 완성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건축물 규모 및 형태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

종합적으로 볼 때, 공리항·세화항·신천항이 전반적인 경관 기능적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죽포항·신창2리항·장사항은 개별 항목별로 뚜렷한 강점과 약점이 존재하여 단계적 개선을 통해 경관과 기능성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대상 공간 및 시설별로는 경계공간 / 어항 경관 관리구역(7.5) > 안내체계 및 시각표지(7.2) > 건축물 규모 및 형태(7.1) > 배치 및 동선 설계, 안전 및 방범장치(7.0) > 조경 및 야간경관(6.9) > 조경 및 녹지(6.8)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색채 및 외장 재료(6.6)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보면, 경계공간 및 어항 경관 관리구역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전반적 경관 관리의 완성도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안내체계 및 시각표지와 건축물 규모 및 형태 또한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아 이용자 중심의 가독성과 시각적 안정성이 확보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어서 배치 및 동선 설계와 안전 및 방범장치가 동일한 수준의 점수를 기록함으로써 공간 구성의 효율성과 이용 안전성 측면에서도 일정한 품질이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조경 및 야간경관과 조경 및 녹지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여 야간 활용도와 환경적 쾌적성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특히 색채 및 외장 재료가 가장 낮은 점수로 나타난 것은 디자인가이드라인과는 관계없이 아직도 상징조형물의 적용이나 시각적 주목도를 높이기 위한 강한 원색계열의 색채 등을 적용함으로써 전체 경관의 조화성과 미적 완성도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항만 경관의 시각적 품질을 높이기 위해 색채계획과 외장 재료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우선적으로 요구됨을 시사한다.

[표 5] 공간시설별 유형 및 디자인 요소 가이드

대상 공간 / 시설	죽포항	공리항	신창2리항	세화항	신천항	장사항	평균
경계공간 / 어항 경관 관리구역	5.8	8.2	6.0	8.4	8.6	7.8	7.5
건축물 규모 및 형태	4.4	8.6	7.0	8.6	8.2	5.8	7.1
배치 및 동선 설계	5.0	8.0	6.2	7.8	7.8	7.2	7.0
색채 및 외장 재료	4.6	6.0	5.8	8.0	8.6	6.4	6.6
조명 및 야간경관	7.0	8.4	5.8	6.8	7.2	6.4	6.9
조경 및 녹지	7.6	7.4	4.4	7.0	6.6	8.0	6.8
안내체계 및 시각표지	8.2	8.0	4.8	7.8	7.2	7.2	7.2
안전 및 방범장치	6.6	8.0	3.8	8.0	7.8	8.0	7.0
총점	49.2	62.6	43.8	62.4	62.0	56.8	

5. 결론

본 연구는 국가어항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으며, 실제 공간에서 어느 수준의 공간 품질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어촌뉴딜300사업 사례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국가어항 공공디자인은 조화성·기능성·접근성 등 핵심 요소에서 일정 수준의 성과를 보여 왔으나, 디자인 요소별 완성도의 편차가 크고 지역 특성 반영이 미흡하다는 구조적 한계가 확인되었다.

여섯 개 사례의 비교 분석을 통해, 세화항·공리항·신천항은 높은 조화성과 기능성을 기반으로 지역 정체성을 강화한 대표적 우수사례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역의 자연·경관·재료를 건축·공공시설 디자인에 적극적으로 반영했을 때 공공디자인의 공간적 완성도가 향상된다는 점을 입증한다. 반면 죽포항·신창2리항·장사항은 일부 항목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는데, 특히 색채·외장 재료와 조경·야간경관 등 시각적 통일성 및 환경적 요소에서 부족함이 나타났다. 이는 디자인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색채 기준이 현장에서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거나, 지역 경관과 조응하지 않는 원색계열의 시설물 설치 등으로 인해 경관의 조화성이 저해되는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공간시설 유형별 평가에서는 ‘경계공간 및 어항 경관 관리구역’이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반면, ‘색채 및 외장 재료’가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하여, 아직까지 어항 경관관리에서 물리적 정비 중심의 접근이 우세하며 색채·재료에 대한 정교한 가이드라인 적용은 미흡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현행 가이드라인이 권고 수준에 머물러 있어 실효성이 제한적이며, 지역별 상황에 따라 세부 기준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틀 또한 부족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종합적으로, 국가어항 공공디자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이 요구된다. 첫째, 지역 고유의 자연·문화·경관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색채·재료 기준의 세분화가 필요하다. 둘째, 계획·설계·시공·사후 관리의 전 단계에서 공공디자인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가이드라인의 실질적 이행력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어항별 특성에 기반한 차별화된 디자인 전략을 통해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조경 및 야간경관 등 생활환경 요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복합적 이용을 지원하는 공공공간 조성을 강화해야 한다.

본 연구는 국가어항 공공디자인 운영체계의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사례를 분석할 수 있는 표본의 한계와 정량평가의 가중치 설정 문제 등 후속연구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 향후에는 보다 다양한 지역 사례와 장기적 사후관리 데이터를 포함하여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더욱 정교하게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1. 육근형, 장영호, 김주연, 공공사업의 품질관리시스템 구축 방향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 2023.
2. 한국농어촌공사, 2023년 공공디자인 우수사례 선정심사 자료(내부자료)
3. 한국농어촌공사, 2024년 공공디자인 우수사례 선정심사 자료(내부자료)
4. 한국농어촌공사, 2025년 공공디자인 우수사례 선정심사 자료(내부자료)
5. 해양수산부, 어촌뉴딜 300사업 시행지침(안), 2020.2.14.
6. 해양수산부, 국가어항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해양수산부 예규 제125호, 2021.
7. naraport.mof.go.kr